

2019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9. 6. 24. ~ 7. 14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일단 학교위치는 매우 안쪽에 있어 시골이다. 차를 타고 5분~10분정도 나가면 음식점과 마트 등이 나오지만 학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다. 기숙사 시설은 생각 했던 것보다 별로였다. 방은 순천향대 기숙사보다 크지만 옷장과 화장실은 낡았다. 세탁기도 너무 더러웠다. 하지만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전하고 매일 밤 관리자가 돌아다니며 순찰한다. 학교 학생들도 너무 착하고 친절하였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서로 다같이 어울리며 재미있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코딩수업이 주된 수업이다. 코딩에 대해 아무런 지식과 정보가 없는 학생들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나도 코딩을 처음 접하는 거라 매우 어려웠다. 교수님이 앞에서 코딩을 하면 그것을 보고 자신도 똑같이 만드는 것이다. 웹디자인을 배우는 것이라는 정도만 인지하고 수업을 들었던 것 같다. 과제는 따로 없지만 현장학습을 다녀온 후 파트너랑 웹사이트를 만들 때 필요한 기사나 사진 등 별도로 준비하는 것 밖에 없다.</p>
필드트립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p> <p>샤스타 주변의 관광지를 구경하는 것이 필드 트립이다. 수업이 끝난 후 주변에 호수나 동굴 또는 폭포, 수영장, 메디컬 센터 등 다양한 곳을 가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필드트립 중 수업을 하지않고 샌프란시스코에 가는 날이있다. 그날은 긴팔을 입고 가야한다. 아주 바람이 많이 불고 생각보다 추운 날씨다. 준비물은 선크림과 물, 모자, 카메라 등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필드트립은 야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더울 수 있지만</p>

	<p>혹시 모르기 때문에 긴팔도 가지고 다녔다. 돈은 따로 들지 않지만 쇼핑이나 개인이 사고 싶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상금은 항상 들고 다녔다. 하지만 많이 쓸일은 없고 샌프란시스코나 큰 필드트립을 할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 햇빛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선크림은 필수였다. 매우 건조한 날씨이다. 3주동안 비는 한번밖에 오지 않았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 갈 때는 긴팔 긴바지는 필수였다. 매우 추웠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 기숙사는 관리자가 항상 돌아다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였다. 가끔 주말이나 개인적으로 외국인 친구들과 돌아다닐때는 이상한 사람만 안 만나면 괜찮다.</p>
숙소	<p>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기숙사 방 크기는 순천향대학교 기숙사보다 조금 크다. 하지만 옷장은 매우 더러웠다. 커먼스라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외국인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 놀 수 있고 그 곳에서 음식도 해먹을 수 있다. 분위기는 화목했고 재미있었다. 기숙사 통금은 12시로 알고 있다.</p>
식사	<p>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주로 카페테리아에서 주는 음식을 먹었지만 가끔 마켓에서 산 라면과 밥을 먹기도 하였다. 미국 음식이 너무 짜서 먹기 힘들었다. 주말에는 밥을 안주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과 나가서 먹기도 하였다.</p>

교통	시내교통 관련
	학교 주변에 교통수단은 없다. 무조건 외국 친구들 차를 타고 나갔다. 우버택시를 이용해 본적도 없다. 외국 친구들이 너무 착한친구들로 만나서 그 친구들이 차를 자주 태워주곤 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쇼핑	50	
식사+간식포함	40	
합계	9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카페테리아에는 물론 숟가락과 포크가 있지만 주말에 밥을 안주는 경우 각자 알아서 먹거나 나가서 먹어야 한다. 돈을 아끼고 싶으면 라면이나 핫반 몇 개는 챙겨와도 괜찮다. 개인이 사용할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져오면 아주 유용할 것이다. 에어컨을 많이 틀어주기 때문에 긴 팔도 몇 개는 필수이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처음에 샬스타에 도착했을 때는 기숙사도 낯았고, 적응이 안되었지만 2일만에 외국인친

구들과 한국인 언니들과 금방 친해 질 수 있었다. 외국인 친구들은 생각보다 친절하였고 모두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커먼스라는 공간에서 모두 함께 모여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아 금방 친해졌다. 또 수업이 끝나면 항상 필드트립을 가기 때문에 사진도 많이 찍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학교수업은 웹디자인 수업이라 조금 어렵고 이해도 잘 안되었지만 외국인 친구랑 파트너가 되어 하는 것이라 힘들지 않았다. 외국인 친구들 중 다음학기에 순천향대학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글로벌 빌리지에 살 때 만났던 친구들도 많이 있어 어색하지 않았고, 더욱 잘 지낼 수 있었다. 주말마다 함께 차 태워주고 놀러가고 한국인학생들에게 너무 잘 해줘서 미안할정도로 고마웠다. 문화교류와 영어회화를 주 목적으로 간 프로그램인데 두가지 다 이루고 온 것 같아서 좋았다.

7.사진보고서(6장 이상)



3주동안 외국인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이다



7/4일 미국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본 날이다



메디컬 센터에 가서 교육받을 때이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샌프란시스코 케이블카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마지막날 웹디자인 발표를 마치고
다같이 찍은 사진이다